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교육 방법 모색 ; 영화 <500일의 섬머>를 예로

김경애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Education based on ‘Empathy’; for Example <(500) Days of Summer>

Kim Kyung Ae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이 지식정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교육이 부족했음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별과 성장이라는 소재와 스토리를 지닌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하였는데, 공감의 단계를 감정인지, 감정이입, 감정교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다. 특히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사소통교육의 요체로 보아, 감정이입 단계와 감정교류(1,2차) 단계 사이에 표현 단계를 두어 5단계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가 작품서사에 공감하고 자기서사를 반추하게 될 때 가능하므로 문학치료학을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반응진술을 수집하여 이러한 수업 과정이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미함을 증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대상으로 수업을 구안하였으나, 이러한 교수학습모형은 현대의 다른 영화 텍스트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감교육, 코로나19, 문학치료, 감정인식, 반응진술, 독자반응비평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d that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eriod were center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improve empathy as a way to improve students' sociality.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as designed around the movie <(500) Days of Summer> which has the theme and story of parting and growth. On this paper the stage of empathy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recognize-into, feeling-into, emotional-transaction stag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emotional empathy to behavioral empathy as the key to communication education, the class was designed in five stages, with an expression stage between the feeling-into stage and the emotional-transaction stage. This course is possible when learners sympathize with the work itself and reflect on their own narrative, so literary therapeutic was used, and students's response statements were collected to prove that this process is meaningful for improving empathy. In this article, the class was designed for the movie <(500) Days of Summer>, but this teaching-learning model can be applied to other contemporary film texts.

Key Words : Empathy Education, Covid-19, Literature Therapeutic, Recognize-into, response, statement, reader-response criticism

*Corresponding Author : Kim Kyung Ae(minerbakorea@mokwon.ac.kr)

Received January 5, 2021

Revised March 8, 2021

Accepted March 20,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교육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기존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소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이 있기는 했지만, 한 해 동안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들에서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미증유의 사건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두 학기를 지나오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검토되고, 의사소통교육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모색되는 시점에 이르렀다[1-5].

그러나 정답이 없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가령, 학생들이 LMS를 활용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고 해서[6], 그것이 곧 학습의 효율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지식정보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학교는 배우는(學) 공간이기도 하지만, 본받고 사귀는(校) 사회성 함양의 공간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2021년 1학기에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 등교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7].

대학은 초·중·등교육을 거쳐 이제 사회에 나아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적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다.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최종목표가 바람직한 시민 양성에 있다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 능력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능력이야말로 깊이 있는 민주적 경험”[8]이라는 유의미한 말을 한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는 차별과 소외,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과 대립, 온갖 피해의식과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 흡수저 논쟁이 불러일으킨 계층이동의 불가능성과 그에 따른 패배의식 등 이른바 ‘헬조선’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부정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20대 대학생들에게 열폐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들은 많다. 물론 그 피해의식과 불안감의 원인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소통의 부재, 공감 능력의 빈약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역할을 했거나 이를 심화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팬데믹이 202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재확인하고, 공감에 기반한 교수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2 작품 선정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학생들과의 쉬운 소통을 위해 서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서사(이야기)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진 시간(소설의 경우 독서시간) 동안 서사는 우리에게 특정한 세계를 재현(representation)하거나 재진술(recounting)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서사의 주제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제시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갈등을 ‘플롯을 지탱하는 요소이자 원리’ 이면서 인물구성(성격구성 characterization) 및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형상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9].

서사가 여러 가치들이 맞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인간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매개가 된다고 할 때, 갈등은 서사의 교육적 활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는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물론 그것이 적절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유효한 가치는 무엇이고 새롭게 평가될 가치는 무엇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취기준에 합당한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텍스트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그려진 갈등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밀착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그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텍스트인 마크 웹의 영화 <500일의 섬머>는 깊이 있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았거나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한 번쯤 하소연했을 법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용이한 작품이다. 이 점은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썸머였고, 톱이었다”[10]고 한 네티즌의 말에 잘 드러난다. 연애와 이별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상처의 문제는 대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주된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영화는 관객에게 당시에는 그 문제로 인해 매우 혼란하고 괴롭겠으나, 그래도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넨다.

이 영화는 톰과 섬머가 만난 지 488일부터 시간을 뒤섞어가며 톰의 상황과 심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이 기억을 재구하는 방식과 유사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재구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관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였는데, 톰의 입장을 옹호하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섬머의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 측과, 섬머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랑에 대해 환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주체적이지 못했던 톰을 비판하는 측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관객들은 두 사람의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무리 좋은 상대가 나타나도 스스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적 맥락에 관련된 이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시한 맥락에서 이 작품은 두 인물 중 더 공감 가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상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상대측의 입장에 전폭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건강한 토론을 시도하여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공적 의사소통방식인 토론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수행될 것이다.

첫째, 영화 제재를 활용하여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기존 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공감에 이르는 학습모형을 탐색하고 제안한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신(혹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 감정까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구안한다.

셋째,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분위기와 요건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2.1 공감의 층위에 따른 단계 설정

공감은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의 결합어로 ‘들어가서 느낀다’의 의미를 함축한 독일어 ‘Einfühlen’ 혹은 ‘Empatheia’의 번역어이다. 타인의 감정을 깊게 들어가서 느낀다는 의미로서, “‘자타동일시’(홉스, 루소, 쇼펜하우어), ‘상상 속의 입장 바꾸기’(아담 스미스)나 ‘타인의 관점으로 옮겨가 모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칸트, 롤스), ‘상상적 자기전치’와 ‘상상적, 관념적 대리체험’(슐라이어마허, 딜타이, 짐멜, 즈나니키), ‘상상적 재구성’(매키버), ‘사유이입적 재현’(롤링우드), ‘가상적 관점인계’(하버마스), 또는 ‘상상적 역할 채택(role-taking)’(미드, 콜버그, 피글러) 등”[11]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여 그것을 공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공감은 더불어 느낀다는 점이 유사하기는 하나,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행위가 빠져 있는 ‘교감’과는 구분된다.

공감은 ‘자아’가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여 그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로서, 정서적·인지적·의사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감의 층위에 따른 구성요소와 반응내용, 반응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Aspect and Components of Empathy

Aspect	Components	Act of conduct	Result of reaction
Recognition	recognizing Emotion	to recognize	recognize-into
Emotion	feeling Emotion	to feeling	feeling-into
Communication	expressing Emotions	to express	emotional transaction

Table 1은 Feshbach, Clark, 박성희 등의 논의를 층위 중심으로 간추린 것이다. 연구자마다 명칭과 국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인지, 정서, 소통 국면에서 일어난 반응들을 하나로 합쳐 객관적 정동(affect)에 이른 상태를 공감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14].

필자는 인지 국면과 정서 국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으로, 인지, 정서, 소통의 국면을 모두 포괄하는 공감을 ‘행위적 공감’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주관적으로 경험된 상태의 감정(feelings)과 외부에서도 관찰되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의 감정(emotions)은 분명 다르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교수학습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서적 공감이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공감을, 행위적 공감이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차원의 공감을 의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적절한 언어와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상호소통을 원활히 이루어 협업(collaboration) 가능한 인재로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정서적 공감을 넘어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 혹은 확장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함축한다.

의사소통교육에서 보자면 이는 '표현'의 단계를 상징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말이든 글이든, 개인적 이해나 인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과정, 곧 소통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정인지', '감정이입' 단계 후, '정서적 공감→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 혹은 확장 과정이 교수학습 모형에 드러나고 '감정교류' 과정으로 전이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문학치료학의 활용

정운채가 집대성한 문학치료학의 가장 큰 성과는 문학과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한 것이다. 이전까지의 문학연구에서 문학을 그저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만 생각해왔다면, 정운채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문학치료 개념을 제안한다[15]. 기존에 문학을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만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은 그 자체로 문학이며 서사이고 인간관계 자체가 문학치료학의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운채는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변화시켜 나가는 통로로 문학을 바라본다. 가령,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 바라본다면, 서사는 인간관계의 형성, 위기, 회복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될 수 있는 개념이 자기서사(自己敍事)와 작품서사(作品敍事)이다. 자기서사란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며, 작품서사란 작품 자체의 이야기를 말한다. 문학치료학은 작품의 서사가 개인의 서사에 맞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데서 시작하는데, 작품에 깊이 공감하게 될 때 개인은 자기서사를 반추하고 이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가상의 인물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 작품 속에 구현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서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감되는 서사를 만난 개인은 자기 안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게 된다.

치유는 바로 공감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용어로는 이를 카타르시스(정화 혹은 조정)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치유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는 인간관계의 갈등구조가 포

함된다. 자기서사가 작품서사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유의미하게 만나는 지점, 곧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공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주상영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안적 자기서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이야기 치료에 적극 활용하였다[16]. 그가 제시한 문학을 통한 공감과 소통은 다음 세 가지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자기서사로 현실을 파악한다든가 갈등 상황을 대처할 수 없을 때, 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서사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서사가 약해서 특정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 관련 갈등상황이 제시된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고민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직면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수업의 필수 요소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법, 2015)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간다운 성품은 사회적 자아로서 타자(타인, 공동체, 자연)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상호소통을 원활히 이루어 협업(collaboration) 가능한 인재로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구조 차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경로가 필요하다. 대면 교육에서라면 상담 및 질의응답 시간의 상설화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의 경우 즉각적인 대면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교육시스템(Zoom,

MS Teams, Webex 혹은 각 대학의 LMS)의 채팅창이나 단독방 등을 활성화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신속하게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 외 시간을 상담에 투입하는 것은 학과 소속 교원이 아니면 어려운 일일 수 있으므로, 교양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교육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필요하다.

둘째, 공감 교육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업 과정 속에는 정서적 공감과 행위적 공감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의, 토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수업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상호칭찬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감사하기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이 하나의 학습공동체라는 인식을 지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적어도 주당 1인 1회 이상 상호칭찬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감사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공동체라는 인식과 분위기 속에서라야 학습자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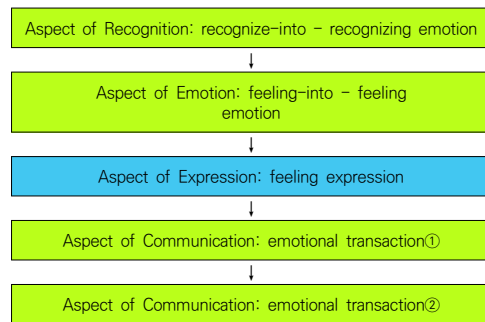
3.2 수업 설계

교수자는 학습자의 공감이 인지적, 정서적, 문화적, 공동체적 등 어느 수준에서 일어났는지(혹은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히 예측하여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감의 층위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서적 공감과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 혹은 확장 과정은 ‘관점 정리 표현 단계’로 따로 마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의 반응이 톰을 옹호하는 측과 섬머를 옹호하는 측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톰을 옹호하는 측은 톰에 대해, 섬머를 옹호하는 측은 섬머에 대해 것처럼 행동했던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상대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먼저는 자신이 옹호하는 인물에 대해, 나중에는 자신이 비판한 인물에 대해 공감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의 공감하는 단계를 ‘감정교류 1차’ 단계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하는 단계를 ‘감정교류 2차’ 단계로 설정하여 이를 단계화하였다.

수업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Flow chart of syllabus



먼저 ‘감정인지 단계’는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잡고 주요한 스토리를 따라가며 톰(혹은 섬머)의 500일을 재구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감정이입 단계’는 나의 경험을 반추하여 톰(혹은 섬머)이 어떤 점을 힘들어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느끼는 단계이다.

‘표현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현하여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감정교류 1차 단계’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하는 단계이고, ‘감정교류 2차 단계’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하는 단계이다.

3.3 학생들의 반응진술 수집 결과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토론 텍스트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지닌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겪었거나 생각해 볼만한, 인물들에게 깊이 공감하여 자신의 이야기, 곧 자기서사와 접목될 수 있어 공감이 쉬운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잠재된 갈등을 지니고 있어 이를 가지고 토의, 토론이 가능한 텍스트의 활용이 바람직한데, 이는 토론 텍스트 선별의 요체가 될 수 있다. <500일의 섬머>가 이러한 갈등을 지니고 있음은 독자 반응에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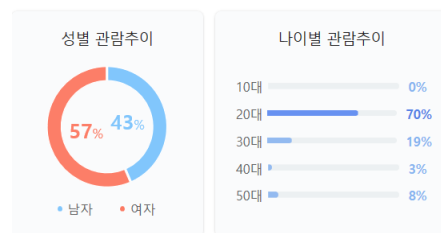


Fig. 1. The viewing trend

제시한 그림은 2020년 1월 네이버 영화 플랫폼에서 <500일의 섬머> 검색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17]. Fig.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영화는 20대가 압도적으로(특히 남성관계이) 좋아하는 영화로 나타난다. 이점은 영화가 주인공 톰의 시선으로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톰에게 공감한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리가 톰의 시선에서 재구되기 때문에, 남성 관객들은 톰을 옹호하는 편에서 서서 섬머를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섬머가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섬머는 권태로움을 못 견디는 여자다’ 등 섬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반면, 섬머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톰이 지나치게 이기적일 뿐 아니라, 관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톰을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톰은 상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톰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감정에 빠져 있었다’ 등 톰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수업 결과, 교실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뜨겁게 사랑했던 여름(서머)이 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을(어텀)이 온다’ 등 톰의 입장에서 말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톰은 섬머의 취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등 서머의 입장에서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아래 제시한 글은 작품발표자(김*영, 한*서)가 학습공동체의 반응을 조사한 것인데 유의미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여기에 예시한다.



Fig. 2. Audience reaction

의견이 비슷한 친구의 생각을 먼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데서 얻어지는 비슷한 관념집단에서의 공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 한 데서 얻어지는 이질적인 관념집단과의 공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한 결과, Fig.3에서 드러나듯 학생들이 상대측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공감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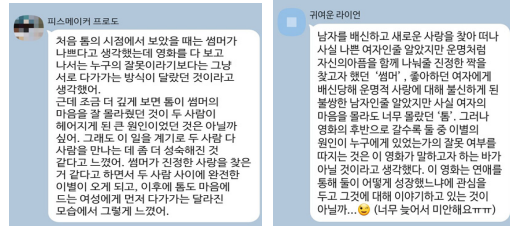


Fig. 3. Audience reaction

따라서 감정교류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업 과정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을 촉진시키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유효했다고 여겨진다. 학습자들이 역사사지를 통해 사고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3을 살펴보면, 톰을 옹호한 측이든 섬머를 옹호한 측이든 모두 이별의 과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영화가 대학생이 많이 노출되는 연애 실패 혹은 이별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든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이든,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경험을 투사하여 인물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의 인물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 작품 속에 구현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개인은 가상의 인물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의 공유, 곧 공감에서 치유가 비롯된다. 아울러 학생들은 현재 혹은 과거의 실패 혹은 실수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데, 학습공동체의 반응진술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인간은 온전히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바람직한 인격체로 완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서사를 통해 인물에 공감하게 하여 사고의 균형을 잡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유의미하다. 아울러 학습자가 작품의 서사에 공감하였을 때 그 진폭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텍스트 선정 시 학습자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잇닿는 작품을 선정해야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별과 성장이라는 소재와 스토리를 지닌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구안하였다. 수업 설계에 있어, 5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구안하였는데, ‘감정인지 단계’는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잡고 주요한 스토리를 따라가며 톰(혹은 섬머)의 500일을 재구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감정이입 단계’는 나의 경험을 반추하여 톰(혹은 섬머)이 어떤 점을 힘들어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느끼는 단계로, ‘표현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현하여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감정교류 1차 단계’는 같은 생각을 가진 관념그룹과 공감하는 단계로, ‘감정교류 2차 단계’는 다른 생각을 가진 관념그룹과 공감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학습자들과 공감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온라인 수업이 잠정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공감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대상으로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으나, 이러한 수업 모형은 다른 텍스트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후에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갈등을 지닌 텍스트를 발굴해 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응용하는 학습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고 하겠는데, 이는 이후 과제로 남겨둔다.

REFERENCES

- [1] S. W. Han & B. Y. Kim. (2020). A Study on the Response of Learners to University Online Education after Corona 19.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Convergence*, 42(10), 155-172.
- [2] K. H. Lee & J. Y. Cha. (2020). A case study on online seminar/writing classes - Focusing on the case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1(5), 61-99.
- [3] S. A. Shin, O. B. Kim, J. I. Park, E. J. Kim & T. W. Chung.(2020). Exploring the Direction of University Lectures in the Post-Corona Era : Focused on Analysis of Mid-semester Lecture Evaluation Data Mining and Semantic-network Analysis, *JOEC*, 26(5), 195-228.
- [4] K. W. Jang. (2020). A Case Study on Project Based Learning in Distance Education: Focusing on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5), 775-804.
- [5] J. Y. Kim. (2020). A Research on the Effective Discussion Class in the Age of Multimedia. *Ratio et Oratio*, 13(2), 61-99.
- [6] B. K. Lee. (2020). A Study on Learners' Response to Online College English Class as General Edu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4), 97-112.
- [7] W. H. Choi. (2021. 01. 28). *The Hankyoreh*. Announcement of the "2021 Bachelor's and Curriculum Operation Support Plan" by the educational authorities.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0770.html>
- [8] J. Rifkin. (2009). *The Empathy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London: Penguin Publishing Group.
- [9] K. A. Kim.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Education Methods Using Conflict in narrative -On the example of the film <The Throne>. *Ratio et Oratio*, 11(2), 199-224. DOI : 10.19042/kstc.2018.11.2.199
- [10] The privilege of holiday. *We were Tom and Summer once*. (2010. 01. 05.). Naver Blog. <https://blog.naver.com/iiso8867/221509434107>
- [11] T. Y. Hwang. (2014). *Emotions and bmpathetic hermeneutics*. Seoul: Changbi.
- [12] Fehbach, N. D. (1979). *Empathy training. A field study in affective education*. In Biological and Social Processes, ed.
- [13] C. Clark. (1997). *Misery and company: Sympathy in everyday lif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4] S. H. Park. (2010), *Empathy: Yesterday & Today*. Seou: Hakjisa Co.
- [15] U. C. Jeong. (2008). Literary Therapeutics and Theory of Epic. *Journal of Literary Therapy*, 9(0), 247-278. UCI : G704-SER000008852.2008.9.001
- [16] J. Park. (2018). Connecting Narrative Therapy to Progress of Literary Therapy. *Journal of Literary Therapy*, 46(0), 9-38 DOI : 10.20907/kslt.2018.46.9
- [17] *The Viewing Trend* (2010. 01. 05.). Naver Movie. <https://search.naver.com>

김 경 애(Kim Kyung Ae)

[정회원]



- 199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국어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미디어 교육
· E-Mail : minerbakorea@mokwon.ac.kr